

'혁명' '레퀴엠'으로 5월 영령 위로하다

예술로 만나는 오월

4 광주시립예술단체 공연

시립합창단 16일 추모음악회

부산시립합창단·김방술 등 협연

18일 교향악단 'Remembering 5·18'

김홍재 지휘 시벨리우스 '핀란드어' 연주



광주시립합창단 공연 모습.

해마다 5월 관련 공연을 열고 있는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이 올해도 음악으로 추모 무대를 준비했다. 올해 만날 수 있는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 '혁명', 모차르트의 '레퀴엠' 등이다.

광주시립합창단은 오는 16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37주기 추모음악회를 연다.

합창단은 두 곡의 '레퀴엠'을 준비했다. '레퀴엠'은 라틴어로 '안식'을 의미하며 죽은 자를 위로하고 산자에게 희망을 주는 음악이다. 정식 명칭은 '죽은 이를 위한 미사곡'이다.

이번에 연주하는 모차르트 '레퀴엠'(K.626)은 폰 발제그-스투파흐 백작이 죽은 아내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의뢰한 작품이다. 하지만 모차르트의 갑작스런 죽음 때문에 미완으로 남겨졌고 이후 모차르트의 제자 쥐스마이어가 완성시켰다.

포레의 '레퀴엠(Op.48)'은 그가 46세 때 아버지를 잃고 2년 후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 허망한 슬픔을 달래기 위해 만든 곡으로 알려져 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 곡은 포레 자신의 죽음에 대한 낙천적인 생각을 작품에 고스란히 담았다. 이 곡은 소방관으로 사투를 그린 영화 '리베라 메' (나를 구하에 삽입되어 더 알려진 작품이기도 하다.



김홍재 지휘자

임한규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은 이번 공연에는 광주시립합창단과 함께 부산시립합창단이 협연한다. 부산시립합창단은 부마민주항쟁의 아픔과 정신을 기억하며 지난해에도 베르디 '레퀴엠' 공연에 참여했다. 그밖에 알테뮤지크서울오케스트라단, 소프라노 김방술, 메조소프라노 정수연, 테너 김승식, 베이스 정복기가 함께한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62-613-8245.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Remembering 5·18' 공연을 개최한다.

지난해 말 부임한 마에스트로 김홍재 지휘자가 함께 하는 무대로 김 지휘자는 히로시마교향악단 재직 당시 원폭 일인 8월 6일이면 항상 연주회를 열었다. "이날을 잊지 않도록, 후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이번 연주회의 첫 곡은 시벨리우스의 '핀란드어'다. 원제가 '핀란드어 일어나라'인 이 곡은 러시아의 지배 때문에 자유를 억압당한 핀란드 민중들을 위해 작곡된 작품으로 조국 핀란드를 예상하는 애국가와 같은 작품이다.

두번째 곡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협주곡'으로 올해 시즌부터 도교필 수석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클라리넷 연주자 조성호가 협연한다.

마지막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혁명'이다. 김 지휘자는 '혁명'에 대해 "저항과 극복에 관한 곡"이라고 설명했다. 스탈린 독재가 한창이던 시기에 작곡된 '혁명'은 독재자로부터 불신을 받고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쇼스타코비치가 "정당한 비평에 대한 소비에트 예술가의 창조적 답변"이라는 명목으로 이 곡을 발표한 작품으로 곡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티켓 가격 3만원, 2만원,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613-82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 13일 나주 금성관 동익회에서 열린 '천년의 락(樂), 나주 풍류열전' 개막 공연.

목사골 천년 역사와 흥 공연으로 느낀다

나주시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천년의 락(樂), 나주 풍류열전

나주 천년의 역사와 흥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나주시는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금성관 동익회에서 '가자 조선의 도시로'를 주제로 '천년의 락(樂), 나주 풍류열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나주시와 나주시립국악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시는 2018년 전라도(全羅道) 정도(定道) 천년을 앞둔 시점에서 휴식과 치유의 의미를 담은 공연을 통해 '천년 목사골' 나주를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우뚝 세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3일 열린 개막공연에서는 세계적인 뉴에이지 뮤지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양방민씨가 국악과 어울린 피아노 선율로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제일 한국인 2세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씨는

지난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폐막식 때 2018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는 '아리랑'을 연주해 주목받기도 했다.

양씨는 이날 공연에서 자신의 대표곡인 '프런티어(Frontier)', '프린스 오브 제주(Prince of Jeju)'를 비롯해 나주의 변영을 기원하는 의미로 '호남김부', '나주천가'를 연주해 관객들에게 나주 천년 역사를 고스란히 느끼게 했다.

공연이 끝난후 양씨는 나주시립국악단 단원중호 예술감독에게 국악단 발전기금을 전달했으며, 김중구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겸 삼성출판사 회장은 강인년 역사를 고스란히 느끼게 했다.

공연이 끝난후 양씨는 나주시립국악단 단원중호 예술감독에게 국악단 발전기금을 전달했으며, 김중구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겸 삼성출판사 회장은 강인년 역사를 고스란히 느끼게 했다.

한편 오는 20일에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 2호로 지정된 왕기성 명창의 판악과 어울린 피아노 선율로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제일 한국인 2세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씨는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호남예술제 성악 중·고등부 입상자

〈심사위원〉 강숙자(전남대 교수) 임해철(호신대 교수) 박형하(광산대 교수) 김철웅(목포대 교수) 홍승연(광주교대 교수)	1 김수아(금호중양중3) ◇고등부 1,2학년 ▲최고상 10 김사랑(광주예술고2) ▲금상 6 김드림(광주예술고2) 15 진주혁(전남예술고2) 29 김민수(광주예술고2) ▲은상 4 박소현(남양중1) ▲동상 6 김서현(영산포여자중1) ◇중등부 3학년 ▲금상 5 김승환(목포덕인중3) ▲은상 4 정유진(동아여자중3) ▲동상	▲금상 6 조가은(여수중앙여고3) ▲은상 1 이소연(광주예술고3) 13 김은지(전남예술고3) 25 배에스터(광주예술고3) ▲동상 3 고요한(광주예술고3) 4 김해진(전주예술고3) 7 이진우(전남예술고3) 9 배민혁(전남예술고3) 15 최은진(전남예술고3) 16 황보선(광주예술고3) 20 정희주(부영여자중3)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 예술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	---	--

한·일 합창단, 평화를 함께 노래하다

'오월국제교류음악회' 18일 광산문화회관서 열려

'오월국제교류음악회'가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이달 말까지 광산구가 진행하는 '2017 광산오월문화제' 중 하나로 진행되는 음악회에서는 반전·평화를 노래하는 일본의 '일어서라! 합창단' 대표 시미즈 노리코,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치유를 노래하는 416합창단(지휘 박미리), 민중가수 류의남, 광산구립합창단이 무대에 오른다.

특별출연하는 광산어린이합창단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합창을 시작으로 광산구립합창단의 '우리가 어느 별에서', '민중의 노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이 이어진다. 또 416합창단이 '잊지

않을게', '못 잊어',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열창하고, 민중가수 류의남은 기타리스트 박성연의 연주에 맞춰 '목련이 진다'와 '죽창가'를 부른다.

그밖에 일본의 '일어서라! 합창단'은 '상록수'와 '시대의 꿈'을 들려준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 반전 평화운동을 펼치는 '아미가미 시계노리'와 친구들이 자작곡 '아이고 광주' 등을 공연한다. 피날레 곡은 '인간의 노래'와 '님을 위한 행진곡'이다.

광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art.gwangsan.go.kr)에서 17일까지 선착순 400명을 접수받는다. 무료 관람. 문의 062-960-82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일구 '명작으로 만나는 사진이야기' 강좌

광주시립미술관이 시민참여 사진전 '광주 오월은 따뜻했네' 연계 프로그램으로 박일구 사진작가가 진행하는 강좌를 연다.

'명작으로 만나는 사진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광주시립사진전시관에서 17일·24일(오후 3~5시) 두차례 진행된다. 박 작가는 20세기 인물사진 거장 유섭 카쉬와 내면세계를 다양하게 탐구하는 듀안 마이클을 소개한다. 또 패션과 광고 사진을 통해 오늘날 사회는 인공미를 요구한다고 주장하는 어빙 펜과 여성의 진정한 자아 회복 메시지를 표현한 미국 여류 사진가 신디 셔먼을 살펴볼 예정이다. 그밖에 1990년대 감성과 시대 정신을 포착한 안드레아스 구르스키에 대해 들려준다.

박 작가는 중앙대 대학원 사진학과를 졸업했으며, 개인전 10회, 단체전 200여회에 참여했다. 현재 조선대학교에 출강 중이며, 사진공방 '끼'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062-613-713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금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